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2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김선옥 목사(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의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거창고등학교 신앙집회를 인도하고 옵니다.

6월 설거지 봉사자를 신청 받습니다.

: 생협에서 경남 하동의 무농약 매실을 예약 판매합니다. 이번 주까지 예약 받고 판매는 6월 16일에 합니다. (대 10kg 68,000원, 5kg 34,000원/ 중 10kg 54,000원 5kg 27,000원...)

지난번 초록장터를 통해 400여 점의 물품이 재활용되었고 926,700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이 기금은 초록가게운영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좋아하는 찬송을 암송하여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잠 8:1~4, 22~31 / 시 8
롬 5:1~5 / 요 16:12~15

마 15:21~28

식 당 봉 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임보람 김윤수 김훈동
 다음 주 식당봉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박근혜 박재란 이재문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이종배 고정림 김용훈 황현성 최양순 박지연
 다음 주 설거지 : 서안나 국지연
 떡 대 접 : 광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웨슬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진리의 자유함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서로 지배하지 않고 하나가 되며, 하나이되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모습을 닮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분열과 대립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일치와 화합의 모습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한인철 조윤숙 윤정덕 구성실 강인식 김정숙 권미숙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광혜자 박영희 이주영 오재영 정선희 정현모
 박인혁 변재민 이소혜 송임희 안길상 이형숙 장아름 장미란 정완수
 김재광 허준호 박준희 이기분 이주영 오재영 김성우 박유영 장근성
 박희순 김신실 이순용 류건형 이주은

감사헌금

김경혜 황재모 강지선 김준수 이순정 정우선 최영숙 김극 김재홍
 최희영 하진채 이유일 문금석 고영애 조순덕 김만균 노성희 무명6

생일감사헌금

윤미경

녹색꿈헌금

민병배 문현미 안효창 김창경 우순덕 배근수 김금순 김성한 조영순
 무명6

	장혜숙	백혜숙	오송경	조순덕
	노순옥	박성희	오심	김미순
	김재홍	최경미	정복순	야외
	장영숙	신영신	김진경	장영숙
	정경례	진정숙	김심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정선희	조영순
	권미숙	박미영	배상순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오복순
	이형숙	윤수진	이형숙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김정현
	정영선	서정순	김경혜	서정순
	박혜경	조향미	정현	최영혜
	김재홍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조문弔文

뒤틀린 집 조성오 할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셨다
 감나무 두 그루 딸린 빈집만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살아서 눈 어두운 동네 노인들 편지 읽어주고
 먼저 떠난 아들 뒤틀리도 더러 봐주고
 추석 가까워지면 동네 초입의 풀 환하게 베고
 물꼬싸움 나면 양쪽 불러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심판봐주던/
 이 동네의 길이였다, 할아버지는/ 슬프도록 야문 길이였다/
 돌아가셨을 때 문상도 못한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할아버지네 고추밭으로 올라가는 비탈, 오래 보고 있다/
 지게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아버지가 오르내릴 때
 풀들은 옆으로 슬쩍 비켜 앉아 지그재그로 길을 터주곤 했다/
 비탈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던 그 길은 여름 내내
 바지 걷어붙인 할아버지 정강이에 불룩하게 돋던 핏줄
 같이 파르스름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비탈길을 힘겹게 밟고 올라가던
 느린 발소리와 꿈, 하던 안간힘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그만/
 길도 돌아가시고 말았다/
 풀들이 우복하게 수의를 해 입힌 길,
 지금은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길 위로
 조의를 표하듯 산그늘이 엮드려 절하는 저녁이다

-안도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부질없고 그릇되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사십시오.

아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며 산 것,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며 산 것을 반성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뜻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주시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사역 소개 김선옥 관장	설교 : 김재홍 목사 기도 : 윤정덕 장로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조병무 장로	리 봄 선생 신영신 집사

5	영접위원	한상익 김종락 이성범 정현숙 박영신 한상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영선

믿음으로 읽는 글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이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적 지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지향은 분명 복음적인 요청에 근거하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미래를 여는 데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영역까지 포함한 신앙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태어났고 공동체는 소유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련한 숙제를 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곧 이사 갈 예정인 분들이거나 머무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교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부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전부 투자하거나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나 가정이 그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 얼마큼 마음을 두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교회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신도들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듯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덩치가 큰 교회는 기본적으로 소속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향이 공동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소속감을 가질 만큼의 교회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합당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부족한 이유보다 성서의 원 메시지를 상실한 것이 교회

가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대할 때 어려운 부분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알팍한 심사가 지금은 범교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용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뛰는 소를 위해 고삐가 필요합니다. 커다란 덩치의 소이지만 고삐 하나로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고삐는 우리 안의 본능 곧 제일 약한 고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의 제일 약한 고리는 당연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확히 파악하시고 단번에 도려 내셨던 고리입니다. 소유는 사람이 진리에 눈뜨고 믿음의 길로 나서는 데 그 길을 막는 제일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가로막고 인생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가 끄는 힘을 이겨 낼 장사는 세상에 없어 보입니다.

공동체로서의 단비교회를 설계할 때 그 기초를 다지고 주초를 놓는 과정에 물질적인 면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물질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주인이 될지 아니면 손님으로 참여할 것인지 가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분명 힘들고 피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미리 한계를 설정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한 나무로부터 수확한 열매를 서로 기쁘게 나누어 먹으며 함께 기뻐하고 앞날을 의논하는 단계의 깊이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숙이나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과 물질적 자원을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유익한지에 대한 이정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요청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만들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함과 세상의 지혜를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인 필요와 함께 지역과 이웃을 향한 선교적 관점의 요구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정훈영, 「단비교회 이야기」 중에서